2025-12-03

Economy Brief

12월 FOMC VS 차기 연준 의장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차기 연준의장으로 해싯 위원장 선임이 유력시되고 있음

해싯 위원장 선임이 통화완화정책 기조 기대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당장은 펀더멘탈, 즉 '3저 + α(AI 투자) 효과'에 주목하자

차기 연준 의장 선임 VS 미 연준의 분열

이번달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던 차기 연준의장 선임이 다음달 초로 미루어 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내년 초쯤(early next year)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연준의장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선임이 더욱 유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 위원장을 "추측건대, 잠재적인 연준 의장이 와 있는 것 같다(I guess a potential Fed chair is here)"고 밝혔다. 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WSJ 닉 티미라오스 기자 역시 해싯 위원장의 선임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해싯 위원장의 차기 연준의장 선임 확률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해싯 위원장의 차기 연준의장 선임이 유력해졌지만 금융시장은 당장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싯 위원장 선임이 공식화될 경우 주식시장과 달러화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싯 위원장이 친트럼프 성향인 동시에 감세 등 트럼프노믹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해싯 위원장의 비둘기파 성향이 달러화 약세 압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싯 위원장의 선임 시 미 연준의 분열 양상은 한층 심화될 수 잠재적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안 요인이다. 이미 미 연준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12월 FOMC 회의 금리결정 과정 혹은 점도표가 미 연준의 분열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설사 금리인하가 결정되더라도 다수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FOMC 회의 구성원의 성향을 볼 때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는 표로 금리인하가 결정될 전망이며 가능성은 낮지만 예상 밖으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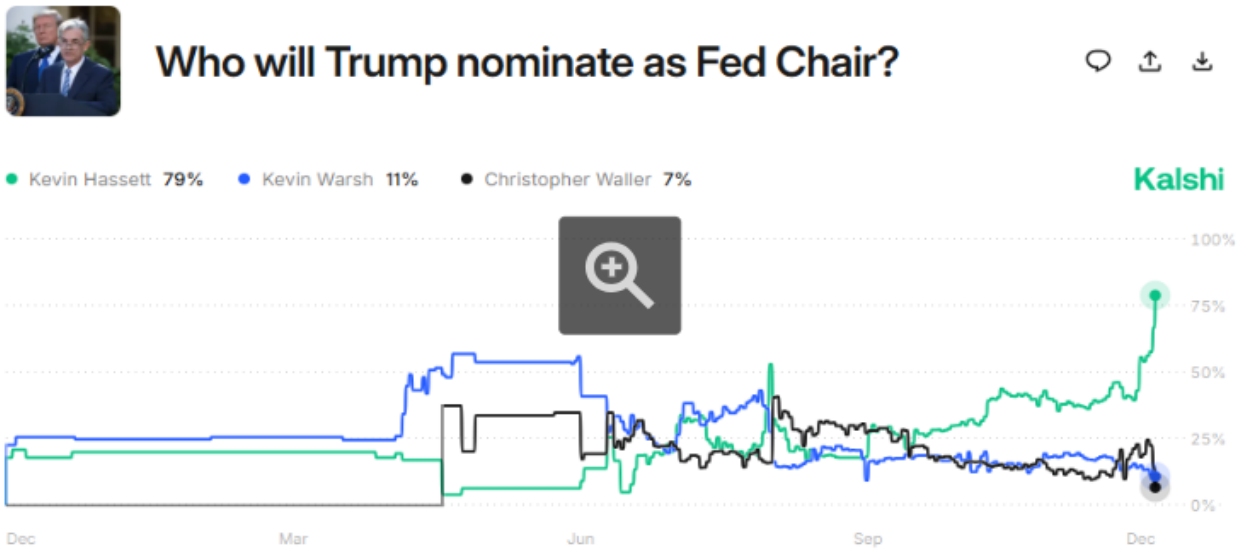
더욱 큰 리스크는 12월 FOMC 회의 금리 결정이 아니라 내년 초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내년초 차기 연준의장이 선임될 경우 파월의장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가뜩이나 분열 양상을 보이는 미 연준내 정책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차기 연준의장 선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연준 분열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26년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3.5~3.75% 수준일 것이라는 확률이 6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음은 12월 추가 금리인하 전제 시 1월에는 금리가 동결되거나 혹은 12월 금리 동결이후 1월에나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시장도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풀이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미약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연준의장 선임이 단순히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 연준의 분열 본격화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나타날지 미지수다. 내년초 차기 연준의장 선임이 금융시장에 큰 이슈임은 분명하다.

당장은 펀더멘탈, 즉 '3저 + α(AI 투자) 효과'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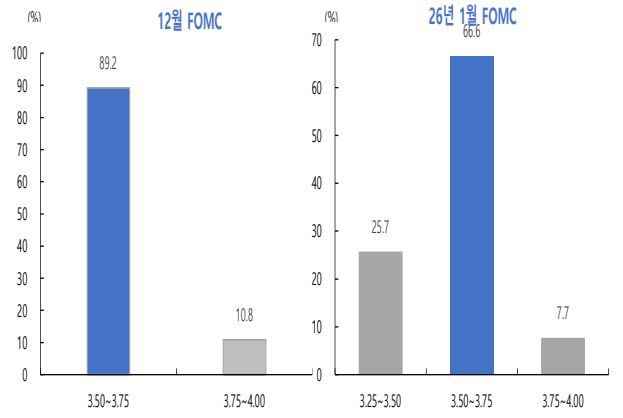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주목할 것은 펀더멘탈이다. 당사가 26년 경제전망 자료에서 강조한 경제와 자산시장 중요한 모멘텀인 3저 현상(저금리, 저유가, 저신용 리스크(=유동성))와 더불어 AI 투자 사이클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중 저신용 리스크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유가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을 대변하는 반도체 가격 급등 추세를 유지 중이다. 정책(=정치) 이슈보다 펀더멘탈('3저 + α(AI 자)효과')를 주목할 시점이다.

그림1. 폴리마켓 차기 연준의장 선임 확률 추이 : 해싯 위원장의 차기 연준의장 선임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12월과 26년 1월 FOMC 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자료: CME,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비트코인 가격 불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지수는 다행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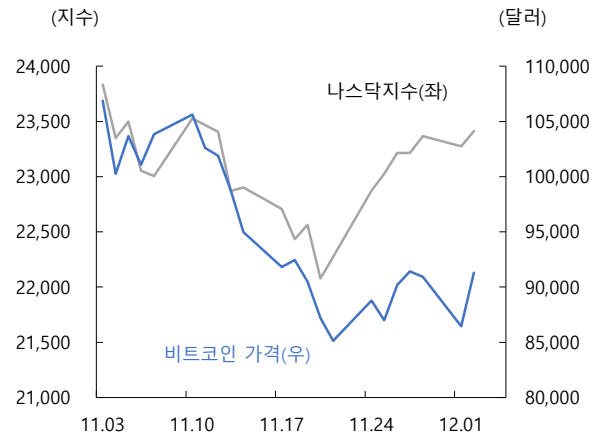


그림4. 3저 현상(저금리, 저유가, 저신용 리스크(=유동성))와 더불어 AI 투자 모멘텀은 지속 중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